

일제 식민지기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담론에 관한 소고(小考)

경성제국대학 윤리·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문혜진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외래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shlove0315@hotmail.net

- I. 머리말
- II. 일본 국민도덕의 형성과 변천
- III. 국민도덕으로서의 국가신도
- IV. 맺음말

이 연구는 2014년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사업(사업명: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는 최종 연구보고서 중 일부분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I. 머리말

일제는 192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륙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통해 군수공업을 육성하고 더 넓은 식민지를 건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자원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정책하에 일제는 1931년 9월 만주침략을 도발하였으며,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을 세웠다.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조선이 중일전쟁의 지원을 위한 후방이 되면서, 총독부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물적·인적 수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선인에게 ‘황민’이라는 사상을 심어줄 필요가 생겼다. 즉,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의무가 주어진 일본 천황의 ‘신민(臣民)’이 되어야 했다. 이에 1931년 부임한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은 일본과 조선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결합하는 ‘내선융화’ 방침을 내세웠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1932년부터의 민심작흥운동(民心作興運動)과 1935년에 제창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이다. 이후 민심작흥운동은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황민화 정책의 핵심은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로서 국가신도¹⁾의 의례를 통해서, 때로는 심전개발과 같이 타 종교를 매개체로 국가신도를 ‘국민의례’로 체화시켜 조선인에게 ‘일본정신’을 심는다는 것이었다. 일본정신은 1930-1940년대 일본혼, 황도(皇道, 혹은 황도정신), 간나가라노미치(惟神の道 혹은 神ながらの道)²⁾, 야마토고코로(大和心)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지만³⁾, 그 핵심적 내용은 만세일

1) 국가신도는 근대 천황제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종교이며 메이지유신에서 태평양전쟁 패전에 이르는 약 80여 년간 일본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새로운 국교는 신사신도와 황실신도를 결합하여 궁중제사를 기준으로 신궁 및 신사의 제사를 조합함으로써 성립되었다.村上重良, 『國家神道』(岩波新書, 1970), 1쪽.

2) 간나가라(惟神)는 “신 그대로, 신으로서, 신이므로, 신의 뜻 그대로” 등을 의미하는 오래된 신도 용어로 근세 이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메이지 이후 널리 사용되었다. ‘간나가라노미치(惟神の道)’는 신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근대 일본에서는 그 의미내용이 특히 국체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신직이자 신도학자인 고노 세이조(河野省三)는 간나가라를 “천황이 황조(皇祖)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본질을 구현시킨 현인신(現人神)으로서 황조의 어심(御心)을 받들어 대리 통치함을 이른다”며 국체와 간나가라를 결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유신의 도’는 종교적 국체 개념의 핵심적인 신학적 교의로 이용되었다.河野省三, 『神社の本義』, 日本電報通信社 編, 『神社大觀』(日本電報通信社, 1940), 3쪽; 박규태, 『종교와 공공성: 국가신도의 국체신학과 공사관념』, 『종교문화비평』 26권(2014), 171쪽.

계의 국체(國體)⁴⁾를 존송하고 제사 지내어 황실을 받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정신의 조선인으로서의 이식은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신민(臣民)이 되는 길(道)을 의미하며⁵⁾, 황민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정신은 국민도덕·간나가라노미치·황도정신으로 담론화되어 성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형성과정은 국가신도와와의 관련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생산을 주도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이하 경성제대 장서) 중 윤리 부문과 신도 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성제대 장서는 식민지 제국대학의 지식생산체계를 이해하는 핵심 자료들이며, 1945년 패전 당시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장서 33만여 권을 훨씬 능가하는 5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 최대의 도서관이었다.⁶⁾ 식민권력은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지식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경성제대 장서는 식민지 조선의 최고의 지식 보고로서 식민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지식 생산에 관여하였다. 즉, 경성제대 장서는 경성제국대학 출신들, 특히 녹기연맹⁷⁾의 지식 생산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참고로 녹기연맹은

-
- 3) 河野省三, 『日本精神發達史』(大岡山書店, 1934), 2쪽; 巨理章三郎, 『國體精神の涵養』(中文館書店, 1933), 12쪽.
 - 4) 국체는 넓게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일본의 국체는 만세일계의 황통으로써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만세일계의 황통이 그 기초이며, 그것에 기타의 부속적 특색이 있다. 주권은 국체의 특징으로 일본의 주권은 황위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만세일계의 황통이 주권의 소재(所在)이다. 井上哲次郎, 『(新修)國民道德概論』(三省堂, 1928), 32-33쪽.
 - 5) 河野省三, 「中臣祓と民族精神」, 國民總力朝鮮聯盟 編, 『祓禊の獎勵』(國民總力朝鮮聯盟, 1941).
 - 6) 정근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통권 87호(2010), 40쪽.
 - 7) 녹기연맹은 1933년 2월 11일에 결성되었으나 그 시작은 1925년에 결성된 경성천업청년단(京城天業靑年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2월 11일(기원절) 국주회(國主會) 회원인 경성제대 교수 쓰다 사카에(津田榮)는 경성제대 예과를 중심으로 경성천업청년단을 결성하였다. 1928년에 결성한 '묘관동인 모임'은 국주회 내 혁신적인 학생활동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었다. 경성제대에 재학 중이던 쓰다의 동생인 쓰다 다카시(津田剛)와 스에 모쿠지로(須江柵二郎),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등 '묘관동인 모임'의 주요 멤버들은 이후 녹기연맹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학생활동가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1931년에는 기존 '묘관동인 모임' 조직을 재편하여 녹기동인회(綠旗同人會)로 재출발하였다. 녹기연맹은 1933년 2월에 이르러 기존의 단체들을 통합하여 '사회교회단체'를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鄭惠瓊·李昇燁, 「일제하 綠旗聯盟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1999), 362쪽;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50(2000), 203쪽.
 - 8) 1931년대 만주사변의 발발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국체명정·내선일체를 표방한 황민화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국체명정·내선일체의 달성은 국가신도의 의례를 국민의

조선인의 황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연맹의 결성에서부터 관여하며 그 주요 간부가 조선연맹의 간부로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지식 생산 및 활동이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녹기연맹의 주요 간부들은 조선연맹에서 내선일체에 관한 담론 생산

례로 의무화시킨 신사참배, 미소기하라이(祓禊)의 실천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녹기연맹의 창시자인 경성제대 교수 쓰다 다카시의 「내선일체론의 발흥과 우리들의 사명(內鮮一體の勃興と我等の使命)」(1937)이란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내선일체의 실현은 내지연장주의나 내선융합(內鮮融合)의 강제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공동의 기반(地盤)에 근거해야 하며, 그 공동의 기반이라는 것은 일본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국체의 자각”이라고 했다(津田剛, 「內鮮一體の勃興と我等の使命」, 『綠旗』 2권 11호, 1937, 4쪽). 이와 같은 녹기연맹의 내선일체 담론이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으로 볼 수 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1940년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하 조선연맹으로 표기)은 중일전쟁 중 전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에 설립한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운동에 호응하여 1938년 7월 7일 내선일체, 즉 반도 민중의 완전한 황국신민화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조직되었다. 조직이 결성되기 직전 1938년 6월 22일 59개 단체와 개인 56명이 참석하여 발기인 총회를 가졌는데(朝鮮教育會,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の組織と其の活動」,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事務局, 『文教の朝鮮』, 1940, 18쪽), 이들 단체 중 녹기연맹이 가입되어 있었다(발기인 및 단체명은 『國民總力運動要覽』(國民總力朝鮮聯盟, 1943) 중 100-106쪽을 참조할 것. 즉, 1938년 조선연맹이 결성될 당시부터 녹기연맹은 가담하였으며, 녹기연맹의 간부들이 조선연맹의 요직을 차지하며 ‘내선일체’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녹기연맹 출신 간부들의 명단을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조선연맹의 녹기연맹 출신의 간부

단체 (설립연도)	참가자(연도/직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1938)	쓰다 사카에(경성제대 예과 교수) - 1938/참사 현영섭(경성제대 문학과 졸) - 1938/본부 주사
국민총력 조선연맹 (1940)	쓰다 사카에 - 1940/보도부(補導部) 참사 모리타 요사오(森田芳夫, 경성제대 사학과 졸) - 1941/문화위원 학술 부문 연락계 → 1942/전무참사, 선전부 편집과장 쓰다 다카시(津田剛, 경성제대 철학과 졸) - 1940/사상부 참사 → 1941/문화위원 교화 부문 연락계, 각종 논문 심사위원 → 1942/이사 겸 선전부장 → 1943/홍보부장 야마자토 히데오(山形秀雄) - 1941/문화위원 출판 부문 연락계 미키 히로시(三木弘) - 1941/문화위원 생활 부문 연락계 스에 모쿠지로(須江幸二郎, 경성제대 의학과 졸) - 1941/문화위원 생활 부문 연락계 스에 아이코(菅江愛子, 스에 모쿠지로의 부인) - 부인지도위원 아미노 미치오(天野道夫, 현영섭의 개명) - 본부 주사 우에다 다쓰오(田龍男, 李泳根의 개명) - 문화부

표1에서 시사하듯이, 녹기연맹이 1938년 이래 조선연맹의 문화 관련 활동에 주요 간부 및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연맹의 ‘내선일체’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경성제대 학자의 지식체계가 녹기연맹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은 향후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검증은 이 글의 연구주제에서 다소 벗어나므로 차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및 운동에 관여하였는데, 1938년 조선연맹의 결성 당시 9대 강령 중 첫 번째가 정신적 방면에서는 ‘황국정신의 현창’, ‘내선일체의 완성’, 즉 국체에 토대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였으며, 내선일체의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요목으로는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하여 신사참배가 실천되었다.⁹⁾ 그리고 신사참배와 같이 국가신도의 의례가 조선연맹의 ‘내선일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례로서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은 ‘신도가 전통적인 일본 규범으로서의 국민도덕이라는 담론’ 덕분이었으며, 이러한 담론은 경성제대 출신의 녹기연맹의 활동 및 잡지를 통해서도 보급·실천되었다.¹⁰⁾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가신도가 어떻게 국민도덕화될 수 있었는지, 혹은 국가신도의 의례가 어떻게 국민의례화될 수 있었는지 식민지 지식 생산의 보고인 경성제대의 윤리 부문¹¹⁾과 신도 부문¹²⁾의 장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시체제하의 심적 동원의 논리로서의 일본정신과 관련하여 1930-1940년대 간행된 윤리 및 신도 관련 장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신도가 어떻게 국민도덕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경성제대 장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 국체명징·내선일체의 황민화 정책과 국가신도 의례의 국민의례화 간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9) 朝鮮教育會, 앞의 글, 26쪽.

10) 녹기연맹의 잡지 『녹기(綠旗)』는 1937년부터 식민지 지식의 생산 및 보급의 매개체로 운용되었다. 『綠旗』 1권 1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神社參拜に就いて)」(1937)에 따르면, “대일본은 신국(神國)이며, 신국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신사를 일본 국민 생활의 중심 기둥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신사야말로 일본제국 발전의 기초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고 숭경의 신사는 이세신궁(伊勢神宮)으로 황실의 종묘, 제국의 대사(大祠), 일본 건국의 본원(本源)과 관계된 거국숭경존신(擧國崇敬尊信)의 중책이며, 또한 일본 국민 모두의 정신생활, 모든 물질생활의 본원의 존재이다”(上內彦策, 「神社參拜に就いて」, 綠旗聯盟, 『綠旗』 1권 1호, 1937, 14-15쪽)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일본 국민 생활에서 근본적인 도덕규범으로서의 신사숭경을 들고 있다. 그리고 도덕규범으로서의 신사숭경은 조선인을 황민화하기 위해 신사숭경의 의례인 신사참배가 수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11) 경성제대 윤리 부문의 장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기호 1140 국민도덕 296권, 1141 교육칙어·무신조서 61권, 1143 무사도 25권, 1144 심학 7권, 1145 보덕교 26권, 1149 한국도덕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경성제대 신도 부문의 장서는 청구기호 1600 신도 81권, 1603 총서 14권, 1610 사전(史伝) 16권, 1620 신기(神祇)·신기(神器) 12권, 1630 신사·신체(神體) 60권, 1640 신직(神職) 3권, 1650 제의·촉예(觸穢) 14권, 1660 축사·정화(祓)·축문 19권, 1670 종파 17권, 1690 국학(和學) 43권이다.

II. 일본 국민도덕의 형성과 변천

경성제대의 장서 중 윤리 분야의 장서는 총 673권으로 그 하위 항목은 1140 국민도덕, 1141 교육칙어·무신조서(戊申詔書), 1143 무사도, 1144 심학, 1145 보덕교, 1149 한국도덕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특히 국민도덕의 하부 항목 중에서도 교육칙어·무신조서, 무사도, 보덕교는 일본 국민도덕의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다. 구체적으로 1141 부문의 장서들은 군인칙유¹⁴⁾·교육칙어¹⁵⁾·무신조서¹⁶⁾·국민정신작흥의 대칙¹⁷⁾ 등 황민화 정책에 필수적인 조서(詔書)로 구성되어 있다. 1143 부

- 13) 윤리 분야의 장서 중 국민도덕 부문 책들의 연대별 구성은 표2와 같으며, 국민도덕 부문의 책이 대부분 1930년대 이후 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시체제하 심성동원을 위해 국민도덕의 담론의 생산과 보급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표2-경성제대 윤리 부문의 장서 중 국민도덕 분야의 연대별 구성

국민도덕 분야의 세부항목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1945	총 수
1140 국민도덕	-	7	18	151	115	296 (연대미상 5권 포함)
1141 교육칙어·무신조서	3	3	6	30	19	61
1143 무사도	2	-	1	10	12	25
1144 심학(心學)	1	-	1	2	3	7
1145 보덕교(報德敎)	5	-	2	13	6	26
1149 한국도덕	1	-	1	1	-	3

- 14) 군인칙유는 1882년 1월 4일 메이지천황이 군인의 최고의 도덕이자 정신교육의 기초로서 육해군의 군인에게 하사한 칙령이다(建部遜吾, 『戊申詔書衍義』, 同文館, 1909, 1쪽). 메이지유신 이전 일본은 무사의 나라였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국민개병(國民皆兵) 제도의 확립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야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도덕(巨理章三郎, 『勅語の聖訓と道徳敎育』, 明治圖書, 1934, 117쪽)으로서 공포된 것이다.
- 15) 교육칙어는 메이지천황이 1890년 10월 30일 황조황중(皇祖皇宗)의 유훈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명징(明徵)하여 초등교육의 근간으로 환발한 것이다(國民精神作興會 編, 『教育勅語物語』, 金蘭社, 1930, 12쪽).
- 16) 무신조서는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 만만의 정치를 다시 다잡을 필요성에서 1908년 10월 14일에 관보에 의해 발표된 메이지천황의 칙서의 총칭이다. 러일전쟁 후 사회적 혼란 등을 시정하고, 급후 국가적 발전에 기해 필요한 도덕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상하일심(上下一心)하여 충실하게 맡은 바 일에 임하여 근검을 중심으로 가계를 운영하고 어디에서도 신의를 중히 여겨 인정이 두터운 것이 국민 전반의 기풍이 되도록, 경박을 피하여 실질을 중시하고 방탕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서로 다잡아 끊임없이 노력해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建部遜吾, 앞의 책, 2쪽).
- 17)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는 1923년 11월 10일 관동진재(關東震災)의 뒤를 이어서

문의 장서들은 무사도¹⁸⁾에 관련된 책들로 전쟁의 승리에 필수적인 심신단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45 부문의 장서들은 보덕교 관련 책들로 도덕·경제 일원론의 논리(物心一如)¹⁹⁾를 강조하며 전시체제하의 물자동원을 위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이 장서들은 전시체제하의 물적·심적 동원을 위해 일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도덕으로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 체력단련, 도덕경제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본이 규정한 국민도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도덕 부문의 장서 중 1140 국민도덕, 1141 교육칙어·무신조서, 1143 무사도, 1145 보덕교를 중심으로 국민도덕의 개념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일본 국민의 규정 및 그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도덕의 개념과 변화

일본에서 국민도덕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부터이며, 메이지 초기 국민도덕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정의를 규명하고자 한 선구자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등이 있다.²⁰⁾ 요시다 구마지(吉田熊次)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 통용된 국민도덕을 “한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서의 유럽 혹은 미국에서 일컫는 도덕이 아니라, 메이지 시기 서구화를 쫓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니시무라 시게키 등이 제창한 충효(忠孝) 본위의 유교를 본으로 하는

국민이 잘못하면 위미침체(萎靡沈滯)하여 유태방일(遊惰放逸)에 빠지려는 폐해를 계식(繫飾)하기 위해 1925년 10월 10일 다이쇼(大正) 천황이 하사한 것이다(山田孝雄, 『國民精神作興に關する詔書義解, 寶文館, 1933, 1쪽).

- 18) 무사도라는 것은 일본 민족 고유의 용감한 기상에 근거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전투적 정신을 중심으로 생긴 군주와 국가에 대한 도덕이다. 1930년대 전시체제 이래 일본 국민의 생활상의 심체일여(心體一如)의 단련, 무도(武道)의 진흥, 통제적 훈련, 근로봉사는 무사도 정신의 현현으로서, 이와 같은 무사도 정신의 연마·체득·독려·철저는 당시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완수하고, 비리부도(非理不道)의 흉악을 척결하고, 세계 안정의 신질서를 건설하는 데 긴요하였기에(佐伯有義 編, 『武士道全書』 1, 時代社, 1942, 13쪽) 중일전쟁 이후 성행하게 된 것이다.
- 19) 보덕교는 니노미야 긴타로(二宮金次郎 또는 二宮尊徳, 1787-1865)가 일본 고유의 신도에 불교와 유교의 사상을 통합하여 창시하였으며, ‘국체를 명징하여 일본정신의 진수에 접하면, 도덕과 경제의 물심일여(物心一如), 즉 도덕경제의 일원화가 달성되고 국민이 전부 일원융합하여 일체가 되는 내외일치(内外一致)가 달성된다’는 교리(遠山信一郎, 『日本精神と新興報徳』, 二宮尊徳翁全集刊行會, 1939, 46쪽, 50쪽)에 의해 일본의 농촌 갱생운동·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 20) 井上哲次郎, 앞의 책, 1쪽.

국민도덕 사상에 기인한다”²¹⁾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충효 본위의 국민도덕 사상을 다나카 요시토(田中義能)²²⁾는 경신숭조에 있다고 보았다.²³⁾ 그는 국민도덕 사상을 건국신화에서 찾으며, “일본은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그 손자 니니기(邇邇藝)에게 일본 땅으로 내려가 다스릴 것을 명한 신칙에 의해 그 기초가 세워졌으며, 그 이후로 극히 존엄한 국체를 발전시켜왔다”²⁴⁾고 하였다. 즉, 일본의 국체는 황조신 아마테라스 이래 만세일계의 황통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체에 대해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²⁵⁾는 “아마테라스를 황조 중의 황조로 해서, 일본 국가 영원의 본원으로 제사 지내고, 그 종통인 황실을 중심 생명으로 해서 국가의 근본조직을 이루는 것”이라 하며 다나카와 동일한 국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황위는 만세일계의 황조의 혈통에 의해서만 계승되며, 군민일체(君民一體)·억조일체(億兆一體)·조손일체(祖孫一體)의 일대가족(一大家族)적 국가를 이룬다”²⁶⁾고 설명하였다.

즉, 이노우에는 천황과 국민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빗대어 해석하며 부모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하나로 보았다. 그는 “고래의 많은 사회가 그 근본을 가족에 놓고 그 사회를 가족과 같이 이루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듯이, 일본도 그러하다. 군주를 민(民)의 부모로 해서 국민상호를 형제자매로 해서 동포라고 칭하고, 국가를 일대가족으로 하여²⁷⁾ 전 국민은 그 전력을 다해 지존(至尊)의 황업을 익찬(翊贊)하는

21) 吉田熊次, 『國體と倫理』(富山房, 1925), 92쪽, 116쪽.

22)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답론을 계승하여 도쿄제국 대학의 신도강좌(神道講座)의 교수로 역임한 다나카 요시토는 경성제대 장서에 『神道講演』(1923), 『神社本義』(1926), 『國民道徳要領講義』(1927), 『かたじけなからの神道の研究』(1933) 등 총 15권의 저서가 소장되어 있다. 참고로 신도강좌에는 이노우에 데쓰지로, 가토 겐치(加藤玄智), 미야지 나오키즈(宮地直一), 다나카 요시토가 차례로 담당교수로 임명되었다.

23) 田中義能, 『國民道徳要領講義』(日本學術研究會, 1927), 76쪽.

24) 위의 책, 53쪽.

25) 이노우에 데쓰지로는 일찍이 한학과 동양철학을 공부한 후에 1884년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국에 유학하였다. 6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친 후 귀국하자마자 당시 도쿄제국 대학 문과대학의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국민도덕론의 체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특히 1912년에는 교육칙어를 일종의 성전(典)으로서 강조하는 『國民道徳概論』을 편찬하였다(박규태, 「국가신도란 무엇인가」, 『종교연구』 제29집, 2002, 241-242쪽). 경성제대 장서에 그의 저서는 『倫理と教育』(1911), 『國民道徳概論』(1933) 등 총 46권이 소장되어 있다.

26) 井上哲次郎, 앞의 책, 208쪽.

것을 그 천분(天分)으로 한다. 이러한 전 국민의 노력이 천황의 자연의 덕으로 포섭되고 통합되어 일본이 통치되는 것”²⁸⁾이라고 하였다. 이노우에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국제, 즉 아마테라스 이래의 만세일계인 일본 황실을 제사 지내고, 또한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천황의 황업을 익찬하여 그 천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도덕이라는 것이다.

1920년대까지 일본에서 국민도덕은 위험한 외래사상에 대한 일본정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되었다. 가령, 이노우에는 국민도덕의 필요성으로 “서양윤리 도덕에 치우친 나머지 동양윤리의 연구를 등한시한 점이나 사회주의·공산주의·과격주의·무정부주의에 의한 사회 문제와 사상 문제”를 들었으며²⁹⁾, 다나카는 “외래사상, 극단적인 주장의 위협에 의한 국제의 해체와 국민도덕의 전복의 위험성”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다나카는 “국제에 관념이 부족하고 국민도덕에 무지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구미인의 깊은 감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불건전한 사상을 품은 자들은 불건전한 사상을 대중의 앞에서 고취시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³⁰⁾는 것이다.

한편 1937년대부터 국민도덕이란 용어는 황도(皇道)로 자주 지칭³¹⁾된다. 신도학자이자 조선연맹의 강연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고노 세이조(河野省三)³²⁾는 중일전쟁 이후부터 유행한 ‘황도’를 “일본 건국 이래 황국신민이 실천해온 천하의 대도(大道), 황조황종의 유훈에 기초한 국민

27) 위의 책, 219쪽.

28) 위의 책, 214쪽.

29) 위의 책, 2쪽.

30) 田中義能, 앞의 책(1927), 4-5쪽.

31)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 고노는 “만주사변 이후 국민의 사상은 긴박미를 더해 안으로는 건국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밖으로는 국난의 타개에 만진하려는 의기가 서로 합쳐져, 1937년 봄부터 여름, 가을에 걸쳐 급히 일본정신의 자각에 박차를 가하고, 그 발양에 대한 분위기가 일어났다”(河野省三, 『日本精神の研究』, 日本文化協會, 1936, 1쪽)고 하였다.

32) 고노 세이조는 1882년 기사이정(驕西町, 현 加須市 驕西)의 신궁가(神宮家)에서 태어났다. 국학원대학을 졸업한 후 다마시키킨사(玉敷神社) 사사(社司)로 근무하면서 모교인 중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8년 국학원대학(國學院大學)·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 주사(主事)를 역임했으며, 1935년 국학원대학 학장에 취임하고 1942년에는 사임하였다(KAZO INTERNET MUSEUM 자료 참조. www.kazo-dmuseum.jp/05story/ijin/kouno.htm 2015년 8월 27일 마지막 접속). 고노는 교육자·신도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는데, 경성제대 장서에도 『神道の研究』(1936), 『神道學序說』(1934), 『神道と國民生活』(1934) 등을 비롯하여 총 30권의 저서가 소장되어 있다. 또한 경성제대 장서에 포함된 조선연맹이나 녹기연맹의 간행물에도 신도와 관련된 글을 다수 수록하였으며, 각종 강연회에서도 활동하였다.

일체의 도"라고 규정하였다. 즉, "황국의 신들이 연 일본의 도는 신의 도인 신도(神道)이며, 그 신도의 순수한 모습 혹은 그 본질이 황도이며, 간타가라노미치라는 것"³³⁾이다. 중일전쟁 이전 황도를 논하는 자는 보수 세력으로 주목을 받아 위험분자의 처우를 받았지만, 1940년대 초에는 일본 국내 혁신의 지도원리로서, 그리고 세계 신질서 확립의 추진논리로서 논해지게 되었다.³⁴⁾ 고노는 1940년대의 '황도'를 "사상상의 신도적 경향, 교육상의 황도학적 경향, 생활상의 무사도적 경향을 합해서 그것을 황도정신의 각성 내지 표현"³⁵⁾으로 규정하며, 황도의 도덕상의 범주를 확대·해석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 당시 황도사상의 성행 원인에 대해 와타리 쇼자부로(巨理章三郎)³⁶⁾는 "전국시대에 들어간 세계체제 속에서 국민교육에서의 황도를 통한 문무 겸비의 대국민을 연성하는 것이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긴요"³⁷⁾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요컨대 일본의 국민도덕이란 충효 본위의 유교를 바탕으로 만세일가의 천황을 아버지로 하여 그 국민들은 각자의 직분을 다하면서 천황가를 제사 지내고 천황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민도덕은 1920년대까지는 서구사상에 대항한 일본정신의 옹호 측면에서, 1937년 이후로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지도원리 '황도'로서 논해져왔음을 알 수 있다.

33) 河野省三, 『皇道の研究』(博報堂, 1942a), 1쪽.

34) 今泉定助, 『皇道の本義』(桜門出版社, 1941), 1쪽;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한 국민도덕으로서의 '황도'사상의 필요성을 고우사카 및 고노의 글을 통해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자 미국·영국을 완전히 대동아 천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은 전투력에서 승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생활력·문화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했다(高阪太郎, 『大東亞戰爭と青年學徒の道』, 東世社, 1942, 2쪽). 황도정신은 일본정신의 진수, 즉 간타가라노미치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정신의 자각은 일본정신과 역사 및 국가를 일체로 해서 건전한 국민정신을 연마하여 건국의 정신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세계 사상전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리하여 대동아 건설에서 영미의 민주주의, 소련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세계관 위에서 새로운 질서와 역사를 다시 건설하고, 창조하고, 황도사상으로 사상계를 선도할 수 있다"(河野省三, 앞의 책, 1936, 6-9쪽)는 것이다.

35) 河野省三, 앞의 책(1942a), 4쪽.

36) 와타리 쇼자부로는 일본 국민도덕 및 교육에 관한 다수의 연구 성과를 출간한 학자로서, 경성제대 장서에는 『修身教授參考: 人格篇』(1926), 『國民道德論概要』(1932), 『教育勸語釋義全書』(1934), 『聖訓と日本精神』(1942) 등 총 23권의 저서가 소장되어 있다.

37) 巨理章三郎, 『聖訓と日本精神』(金港堂, 1942), 119쪽.

2. 일본 국민의 범주

일본의 국민성을 후카사쿠 야스후미(深作安文)는 “일정의 토지상에서 일정의 제도하에 공동생활이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그 역사적 발전에 따라 특유의 국민적 성격이 형성된 것”이라 하였으며³⁸⁾, 다나카 요시토는 “국민이 가치로서의 국가를 자각하고 그 국가가치를 창조해 가려고 하는 의욕, 즉 국민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했다.³⁹⁾ 즉, 다나카는 국민성에 대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역사상 발전해온 국민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신”으로서 “그 정신이 발로하여 국민도덕의 출현을 본 것이다”⁴⁰⁾라고 하였다. 특히 후카사쿠는 국민성을 개인의 성격처럼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자를 본질적인 국민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⁴¹⁾

후카사쿠는 일본 국민성의 특성으로 결백성⁴²⁾ · 쾌활성 · 현실성 · 예양성(禮讓性)⁴³⁾ · 동화성⁴⁴⁾ · 진취성 · 절도성⁴⁵⁾ · 담백성(澹泊性)⁴⁶⁾을 들었고⁴⁷⁾, 고노 세이조는 “발명적 능력과 타 문화에 대한 포용력의 풍부성을 거론하면서 타 문화를 모방, 포용하고, 섭취하고 공구(工具)하는 사이에 항상 본질의 힘을 잃지 않는 것, 즉 고유의 힘을 신장시키는 것에서 일본적인 문화가 발전하고 일본적인 힘이 발휘된다”면서, 그러한 특색을 “야마토고코로 및 간나가라노미치”라고 지칭하였다.⁴⁸⁾ 즉, 후카사쿠와 고노는 공통적인 일본 국민성으로 타 문화를 포용하여 일본적인 것으로

38) 深作安文, 『國民道德要義』(弘道館, 1933), 249쪽.

39) 田中義能, 앞의 책(1927), 6쪽.

40) 위의 책, 25쪽.

41) 深作安文, 앞의 책, 250쪽.

42) 청결을 사랑하고 부정을 기피하는 국민성. 위의 책, 252쪽.

43) 예의를 존중하고 계근(啓慙)을 지키는 국민성. 위의 책, 262쪽.

44) 타 국민의 장점을 취하고, 그것을 개조하여 일본의 사정·경우에 적합하게 하여 일본의 것으로 이루는 국민성. 위의 책, 268쪽.

45) 중용을 사랑하고 극단을 기피하고, 전후를 사려하는 것에 해당하는 국민성. 위의 책, 175쪽.

46) 일본 국민은 다대(多大)한 욕구가 없고 사상도 생활도 단순·간이(簡易)를 사랑하는 반면, 신궁을 시작으로 일본 신사의 대부분은 백목으로 건축되어 신도의 예식이 간정(簡淨)을 존중하고, 이로써 신도 도덕이 결백, 정직, 간소 등의 주덕(主德)을 이루는 성질. 위의 책, 178-179쪽.

47) 위의 책, 252-279쪽.

48) 河野省三, 앞의 책(1936), 2-3쪽.

발달시키는 성질인 동화력을 강조하였고, 이는 1930년대 전시체제하의 국민도덕인 야마토고코로나 간나가라노미치의 특성이란 것이다.

그럼 야마토고코로나 간나가라노미치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에 대해 와타리 쇼자부로는 “국민정신, 국체정신, 건국정신⁴⁹⁾은 그 내용에서 동일한 정신으로 일본혼, 야마토고코로, 국의(國意), 황국혼(皇國魂), 간나가라노미치 등이라 칭하는 국민정신과 일본정신은 동의(同義)”하다고 하였다.⁵⁰⁾ 그리고 고노 또한 “일본정신은 일본 민족의 정신적 유전(遺傳)의 모습이며, 일본 국민의 혼이며, 일본의 국체·일본의 역사·일본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달시켜온 힘이며, 또한 동시에 그것들에 의해서 배양되어 훈련된 마음⁵¹⁾, 일본정신은 건국정신, 간나가라노미치, 무사도 혹은 야마토고코로, 국민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⁵²⁾

한편, 일본 국민의 범주에 대해 가토 겐치(加藤玄智)⁵³⁾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민은 ① 헌법치하의 국민, ② 신정정치를 현대에 가지고 있는 국민, ③ 일본인은 국가적 소유이며 일본 국가는 자연국가로서 소위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천손민족이 중핵을 이루고, 이민족도 이에 더해져 이것이 점차로 팽창·확충되어 마침내 일대국가를 이룬다.⁵⁴⁾

즉, 가토는 일본인의 범주에 ‘이민족’, 즉 피식민지인들도 포함되며,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정정치를 수용하는 것, 즉 황실을 존숭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 의무임을 피력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국민도덕은 일본의 개국 이래 발달되어온 정신으로

49) 건국정신은 건국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천손강림,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창업, 다이카개신, 메이지유신 등 모두가 건국사상 가장 중대한 사적(史蹟)에 속한다. 일본 국가·국체의 창립은 신대(神代)라는 먼 옛날부터 행해진 것으로, 진무천황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군민일체의 도덕에 의해 연속적으로 행하여져온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건국관(建國觀)이다. 巨理章三郎, 『國體精神の涵養』(中文館書店, 1933), 10-11쪽.

50) 위의 책, 12쪽.

51) 河野省三, 앞의 책(1934), 2쪽.

52) 河野省三, 『我が國體と日本精神』(青年教育普及會, 1942b), 62쪽.

53) 가토 겐치는 일본 종교학의 제1대 종교학자로, 1921년부터 1933년까지 도쿄제국대학 신도강좌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국체신도(즉, 국가신도)의 개념화에 기여하였다. 경성 제대 장서 중 그의 저서는 『神道の宗教發達史的研究』(1935), 『神道精義』(1938) 등 총 20권이 소장되어 있다.

54) 加藤玄智, 『神道精義』(大日本圖書, 1938), 193-194쪽.

건국정신, 국체정신, 아마토고코로, 간나가라노미치, 일본혼, 무사도 등과 동일한 것으로, 일본정신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식민지 확장에 필수적인 타 문화의 포용과 그것을 일본적인 것으로 발달시켜나가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국민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용력과 동화력은 식민지의 확장·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필수적인 국민성으로 피식민지인들에게 일본 국민의 유전하는 일본정신을 공교육이나 국가신도의 의례를 통해 이식시킴으로써 피식민지인들도 진정한 일본인(혹은 천황의 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Ⅲ. 국민도덕으로서의 국가신도

신도 부문의 장서는 총 279권으로 그 하위 항목은 청구기호 1600 신도, 1603 총서(叢書), 1610 사전(史伝), 1620 신기(神祇)·신기(神器), 1630 신사·신체(神體), 1640 신직(神職), 1650 제의·촉예(觸穢)⁵⁶⁾, 1660 축사·하라이(祓)·축문, 1670 교파(教派), 1690 국학(和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장서구성의 경향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에서 나타나듯이 신도 부문 장서의 하위 항목들은 모두 일본 천황의 제사기관인 국가신도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 즉, 천황에게 황위를 부여한 황조신 아마테라스 이하 천신지기 및 그들의 행적사·제사를 다룬 것이 신기사로서 신도사이기도 하며, 신도의 제사에는 1630에서 1660까지의 신직·신기(神器)⁵⁷⁾·축사·하라이⁵⁸⁾·축문이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

55) 이에 대해 보충하자면, 다나키는 “조선, 대만, 사할린(樺太)은 아마토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신도에 의해 통치될 수 있는가? 우리 신도에는 위대한 동화력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고대에도 조선인과 지나인이 일본에 귀화해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田中義能, 『神道哲學精義』(日本學術研究會, 1928), 194-195쪽.

56) 병·죽을 따위의 부정한 것을 집축함.

57) 가토 닌페이(加藤仁平)는 일본 황실의 삼종의 신기를 “황조황중께서 하사하신 황위의 증표로서, 역대 천황은 황위계승 때 이것을 계승받아 황위의 존엄으로 일계(一系) 승계되어 변함 없는 황실을 표징”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그는 삼종의 신기는 “보경(寶鏡)의 신칙 및 천양무궁의 신칙과 함께, 국가 건국 때 황조로부터 황손에게 하사된 것으로 순수한 일본정신의 표현”으로 보았다(加藤仁平, 『三種神器觀より見たる國民精神發達史』, 教育研究會, 1928, 1쪽; 加藤仁平, 『三種の神器觀より見たる日本精神史』, 第一書房, 1939, 4쪽). 구체적인 삼종신기의 상징성에 대해 다나키는 “거울은 유(柔) 또는 지(知), 옥은 강(剛) 또는 인(仁), 검은 정직 또는 용(勇)의 삼덕(三德)을 나타낸다”고 하였다(田中義能, 『神道概論』, 明治書院, 1942, 127쪽). 삼종의 신기는 신궁의 본전에 아마테라스의

표3-신도 부문 장서 구성의 경향

신도 부문 장서의 세부 항목	장서 구성의 경향
1600 신도	장서 총 81권 중 66권(약 80% 이상)이 1930년대 이후 간행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부터 간행된 저서명에서 간나가라노미치, 황도 등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1610 사전	총 16권으로 그중 5권이 신기사(神祇史)를 다루고 있으며, 9권이 신도사를 다루고 있다.
1620 신기·신기	신기(神祇)는 일본 고래의 천신지기(天神地祇: 천신과 지신)로서 신기사는 신사의 제신 및 제사의 역사를 다루는 ⁵⁹⁾ 것이다. 반면 신기(神器)는 일본 황실의 3종 신기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1630 신사·신체	총 60권으로 이들 장서는 천황의 제사기관으로서 천황가나 국고에서 그 제사비용을 지원받는 관국폐사(官國幣社)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650 제의·축제	제식(祭式)·마쓰리(祭)·가정제사·잡제(雜祭)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신도의 제사에 대한 저서들이 간행된 배경에 대해 신기학회는 “국민 정신의 기초를 이루고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실로 신기배제(神祇拜祭)의 실행에 있기 때문에, 국민정신의 고양을 위해서 국민일반에 준거할 만한 제사작법의 지도서를 발간한 것이다” ⁶⁰⁾ 라고 하였다.
1660 축사·하라이·축문	오호하라이·미소기하라이(祓禊), 중세시대의 하라이 축사집인 나카토미하라이에(中臣祓), 그 외 대동아전쟁축사집을 비롯한 축사해설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670 교파	천리교(天理教)·금광교(金光教)·흑주교(黒住教) 등의 교파신도, 중세의 유이쓰신도(唯一神道) ⁶¹⁾ , 근세의 스이카신도(垂加神道) ⁶²⁾ 로 구성되어 있다.
1690 국학	가다노 아즈마미로(荷田春滿), 가모노 마부치(賀茂眞淵),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등 흔히 복고신도(復古神道)라 일컬어지는 근세 국학의 4대 학자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외의 국학자로서 이다 다케사토(飯田武郷), 스즈키 시게타네(鈴木重胤)가 있다. 다케시타 가즈마(竹下數馬)는 국학을 “일본적 입장으로서는 순수 일본적인 ‘간나가라문화(惟神文化)’를 정명하게 함으로써 황국의 대도(大道)를 나타내려고 하는 학문” ⁶³⁾ 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시체제하 국학의 부흥 이유에 대해 고노는 “민족정신을 자각하고, 일본 문화를 연구하여 충실한 국민생활을 건설하고, 국운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⁶⁴⁾ 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체로 모셔지기도 하며, 그 외 삼종신기를 제외한 신기는 신사의 제사용구를 지칭한다.

58) 이마이즈미(今泉定助)는 하라이와 미소기의 차이를 규정하였는데, “하라이라는 것은 몸의 부정성을 없애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하라이의 행사가 끝나고 오염과 더러움을 내부로부터 끄집어내서 죄를 없앤 후 행하는 정화의례가 미소기”라는 것이다(今泉定助, 『大祓講義』, 山洲堂書店, 1938, 5쪽). 하라이와 미소기는 일본 신사 고유의 부정성을 씻는 의례이지만, 전시체제하에는 대동아공영권의 완성에 방해가 되는 잡념을 씻어내어 국민총력을 집결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천되었다. 즉, 전시체제하의 민중의 정신통일을 위하여 하라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강연되고 실천되었다(國民總力朝鮮聯盟, 『祓禊の獎勵』, 國民總力朝鮮聯盟, 1941, 1쪽).

59) 清原貞雄, 『神道史』(厚生閣書店, 1935), 5쪽.

60) 神祇學會 編, 『神祇に關する制度作法事典』(神祇學會, 1944), 1쪽.

61) 무로마치시대에 대성한 요시다가(吉田家)의 유이쓰신도는 불교·유교의 가르침을 배

를 바탕으로 천황을 제사 지내는 기관이 1630 신사 부문을 구성하는 관국폐사이며⁶⁵⁾, 국가의 종사인 국가신도를 대신하여 식민지에 신도를 포교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교파신도⁶⁶⁾이다. 그리고 천황의 제사인 국가신도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다노 아즈마마로, 가모노 마부치, 모토오리 노리나가, 히라타 아쓰타네를 잇는 복고신도⁶⁷⁾의 국학이다.

즉, 국가제사에서부터 가정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신사의 제사는 일본 건국의 기초로서⁶⁸⁾ 제사를 통해 경신숭조의 염(念)을 깊게 하고 충군·애

제한 일본 고유의 신도로서 요시다신도(吉田神道)라고 칭하기도 한다.

- 62) 스이카신도는 근세 신도사를 형성하는 2대 사상체계로 천황 중심의 신도사상 연구의 필요성에서 수행되었다. 河野省三, 『唯一神道名法要集解説』(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5), 1쪽.
- 63) 竹下數馬, 『平田篤胤の古典精神』(文松堂, 1943), 6쪽.
- 64) 河野省三, 『國學の研究』(大岡山書店, 1932), 9쪽.
- 65) 표4와 같이 1630대 장서 목록에서 다른 신사들은 시모쓰케신사(下野神社), 소시모리신사(曾戶茂梨神社)를 제외하고 천황의 국가제사 기관인 관국폐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관국폐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이세신궁을 필두로 위계화된 신사의 등급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신사들이며, 관폐사는 일본 황실에서 국폐사는 국고에서 제사비용을 지원받는다.

표4-1630 장서에 등장하는 관국폐사

사격(社格)	1630대 장서에서 다른 신사명	총수
관폐사(官幣社)	이나리신사(稻荷神社), 기타노신사(北野神社), 메이지신사(明治神社), 조선신궁(朝鮮神宮), 대만신사(臺灣神社), 이세신궁(伊勢參宮), 다카신사(多賀神社), 기비쓰히코신사(吉備津彥神社), 사카오대신궁(坂翁大神宮), 아쓰다신궁(熱田神宮)	10사(社)
국폐사(國幣社)	시와히코신사(監竈神社), 센겐신사(淺間神社), 이소노신사(伊曾及神社, 또는 伊曾乃神社로 표기), 시라야마히메신사(白山比咩神社)	4사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	도소궁(東照宮社), 아스쿠니신사(靖國神社),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	3사
기타	시모쓰케신사, 소시모리신사	2사

- 66) 교파신도는 종파(宗派)신도로도 불리며, 에도(江戸) 막부 말기부터 농상공인들 사이에서 강신 체험을 토대로 현세구복적인 경향을 가진 민간신앙들 중 교의(敎義)를 황조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국가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으로 바꾸어 교파신도로 승인받은 13개의 종교 단체를 일컫는다. 신도수성교(神道修成派), 흑주교, 신도계교(神道敎敎), 대사교(大敎敎), 천리교, 금광교, 부상교(扶桑敎), 신습교(神習敎), 대성교(大成敎), 어악교(御嶽敎), 실행교(實行敎), 신리교(神理敎), 환산교(丸山敎)를 일컫는다. 加藤玄智, 앞의 책(1938), 235쪽; 村上重良, 『國家神道と民衆宗敎』(吉川弘文館, 2006), 84쪽.
- 67) 복고신도는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신도의 전개이다. 복고신도의 전개에 대해 국학담화회는 “아즈마마로가 서기(庶幾)한 황왜(皇倭)의 학(學)은 마부치에 이르러 급격히 발달했으며, 노리나가에 이르러서는 복고학, 즉 황국의 학으로 전개되어 완성을 보았다. 아쓰타네에 이르러서는 이 학문이 신황(神皇)의 학으로 전개하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진면목을 발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國學談話會 編, 『國學論纂』(神田書房, 1942), 1쪽; 竹下數馬, 앞의 책, 15쪽.

국의 정신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⁶⁹⁾, 전시체제하 국가제사 자체에 대한 연구 및 국가신도 의례의 실천이 한층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603 총서와 1640 신직을 제외한 1600에서 1690까지의 신도의 장서를 중심으로 신도와 국민도덕 간의 상관성, 그리고 신사의례의 국민의례로의 전개를 이끌었던 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신도와 국민도덕

다나카 요시토는 신도를 “유교가 전래되기 전의 일본 유일의 도덕”⁷⁰⁾, 후카사쿠 야스후미는 신도를 “아마테라스의 위대한 덕에 연원한 일본의 국민사상”⁷¹⁾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나카는 신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본 천황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황조신 아마테라스가 천양무궁의 신칙을 내리고 삼종의 신기(神器)를 하사하고 조상숭배의 대도(大道)를 나타내어, 세계 무비의 일본 국가의 근저·존엄한 국체의 연원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족적이 흘러 신도가 되어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신들이 행한 대도(大道)는 국민의 도(道), 국민의 생활규범, 국민도덕이 되어 일본 국민 된 자는 신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게 된 것이다.⁷²⁾ 따라서 신도의 본질은 이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나가라노미치에 있으며, 고대 일본의 성문법은 모두 신도의 일부를 성문으로 한 것으로 메이지천황의 제국헌법 또한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정하는 것이다.⁷³⁾

즉, 다나카는 ‘신도’를 황조신 아마테라스의 유훈으로 일본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 일본인이 지켜야 할 국민도덕으로 본 것이다.

반면 이노우에 데쓰지로는 “신도를 아마테라스신의 신칙을 민족의 신앙으로 내세운 국가적 종교”⁷⁴⁾, 기요하라 사다오(清原貞雄)는 “신도를 불법의 전래 후 상대적으로 고유 신기(神祇)에 대한 신앙”이라고 규정하였다.⁷⁵⁾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기술에서 나타나듯이 신도를 국민도덕으로

68) 大塚承一, 『實修神社祭式行事作法精義』(京文社, 1941), 1쪽.

69) 皇典講究所 編, 『宮中三殿竝に祝祭日解説』(國暁館, 1912), 2쪽.

70) 田中義能, 앞의 책(1927), 84쪽, 157쪽; 田中義能, 앞의 책(1942), 3쪽.

71) 深作安文, 앞의 책, 207-208쪽.

72) 田中義能, 앞의 책(1942), 122-126쪽, 173쪽.

73) 田中義能, 앞의 책(1927), 160-162쪽.

74) 井上哲次郎, 앞의 책, 86쪽.

간주해야 할지 민족종교로 봐야 할지 혼동되는 것이며, 또한 메이지유신 이래로 재편되어 1945년 일제의 항복 선언 전까지 일본 국내 및 제(諸) 식민지에 적용된 국가신도와 신도를 어떻게 범주화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으로서의 신도와 종교로서의 신도 간의 혼란은 '신사비종교론'⁷⁶⁾과 연관되어 있다. 신사비종교론은 신사가 국가 제사를 행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도덕'이라고 설파하면서 전전(戰前)의 일본 국민에게 신사숭배의 의무화를 강제하는 담론이었다.

이노우에는 1920년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도쿄제국대학 신도강좌의 초대 교수로서 국가신도를 종교가 아니라 국민도덕으로 담론화하는 데 노력한 인물이다.⁷⁷⁾ 이러한 이노우에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가적 신도의 정의를 시도한 가토 겐치에 따르면, “신도는 크게 국가적 신도와 종파적 신도(혹은 교파신도)로 구분된다.⁷⁸⁾ 국가적 신도는 신인즉 일교(神人即一教) 또는 신황신앙(神皇信仰)이나 천황교⁷⁹⁾라는 국민적 종교로서 국민도덕의 방면, 그리고 국가적 의례의 형상을 발전시켜왔다. 일본에서는 상어일인(上御一人, 즉 천황)은 국가적 가족제의 수장, 족부(族父) 또는 부장(父長)으로 있어, 의(義)는 군신, 정(情)은 부자의 관계로 일본 국가가 성립해왔기 때문에 국체가 바로 신도의 정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가토 겐치는 이것을 국체신도라고 칭하며, 신사신도는 이러한 국체신도의 구현화(具現化)라고 하였다.⁸⁰⁾ 가토 겐치의 신도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도식1과 같다.

즉, 가토 겐치는 국가적 신도(국가신도)를 신인즉일교(또는 천황교)라는 종교로 정의하였으며, 그의 정의에서는 국가신도의 도덕적 부분인 국체신도와 종교의 형식화인 신사신도가 각기 범주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신도를 국민도덕 방면과 국가적 의례, 즉 종교적 형식으로 구분하는

75) 清原貞雄, 앞의 책,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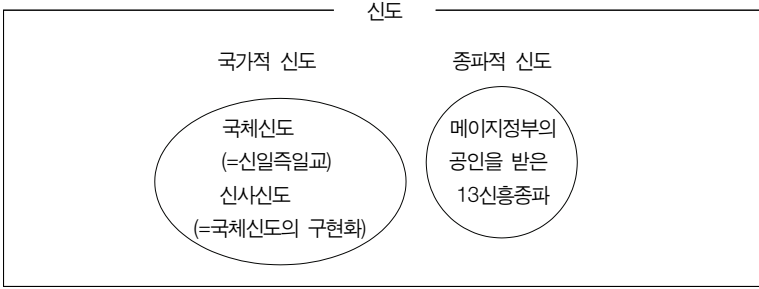
76) 메이지정부는 신교(信教)의 자유를 추구하는 내외의 압박에 밀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28조를 발표하여 신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신교의 자유는 신권적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국헌법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신사신도는 제사이며 종교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신사로부터 종교적 요소를 제거한 이른바 '신사비종교론'을 내세우게 된다. 박규태, 앞의 논문(2002), 232쪽.

7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규태, 앞의 논문(2002), 232쪽; 최석영,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민속원, 2012), 348쪽 참조.

78) 加藤玄智, 『神道の宗教發達史的研究』(大空社, 1935a), 1쪽.

79) 加藤玄智, 『神道の再認識』(章華社, 1935b), 195쪽.

80) 加藤玄智, 앞의 책(1938), 229쪽.



도식1-가토 겐치의 신도 개념의 도식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가토가 규정한 국체신도는 중세 이세신으로 민중에게 널리 신앙되던 아마테라스를 메이지유신 이래 황조신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이세신궁을 필두로 전국의 신사를 위계화하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체신도에서도 종교성이 배제될 수 없다. 즉, 국체신도는 국가의 제사로서 사적인 기원이나 부적 판매 등의 종교적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신궁에서조차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졌다.⁸¹⁾ 애초부터 신사비종교론과 신사비종교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토의 국가신도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신사가 종교로서 신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무로서 숭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가토는 “국가적 신도는 신일즉일교로서 신황배대(神皇拜戴)가 일본 국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적 종교인 국가적 신도를 일본인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신다는 것이 결코 헌법 제28조 신교자유법에 모순되지 않는다”⁸²⁾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사비종교론을 옹호하는 다나가 요시토에 따르면, “현인신 천황폐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신사의 제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심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경의, 도덕적 경의의 표현이며, 진심의 신앙을 바쳐 황조황종을 숭경하고 천황폐하에게 경의를 다하는 것은 진정한 일본정신의 발로이고 일본 국민의 대도(大道)⁸³⁾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신사숭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신도의 도덕적 부문인 국체신도 혹은

81) 조선총독부가 국가의 종사(宗祀)로서 조선신궁의 사제(私祭)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신궁에서는 신전결혼식, 부적판매, 사적 기원 등이 행해졌다. 「神前結婚式のお株をぞひ京城神社へ」, 《京城日報》, 1926년 5월 4일자.

82) 加藤玄智, 앞의 책(1935b), 201쪽.

83) 田中義能, 앞의 책(1942), 184쪽, 187쪽.

신사비종교론에 의해 종교성이 배제된 국가신도는 신사숭경이 곧 국체존숭의 천황숭경으로서 이는 모든 일본인에게 유전하는 일본정신이자 국민도덕이기 때문에 신교의 자유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듯이, 국가신도에서 국민 도덕적 방면과 종교적 형식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국체신도에서조차 그 종교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사숭경이 신교자유법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2. 신사참배의 국민의례화

신사비종교론 및 가토의 국가신도 규정은 신도의 국민도덕 담론화에 일조하였다. 그럼 신도가 국민도덕으로 간주된다면, 신도의 제의시설인 신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가토 겐치는 위의 국가신도의 범주와 같이 신사도 국체신도를 제사 지내는 곳과 신사신도를 제사 지내는 곳으로 범주화하였다.⁸⁴⁾ 또한 고노 세이조는 신사의 제신(祭神)을 “이세 신궁에서는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가시하라 신궁(橿原神宮)에서는 (제1대 인간 천황인) 진무천황을, 하치만궁(八幡宮)에서는 오진천황(應神天皇)을”⁸⁵⁾ 제사 지낸다고 서술하며 신사를 역대 천황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가와카미 다미히로(河上民祐)는 고노의 제신의 범주를 확대하여 “신사에 봉제하여 제사 지내는 신은 황조황종을 시작으로 씨족의 조상 이하 황운익찬(皇運翊贊)의 대업에 봉사한 신령”⁸⁶⁾이라고 하였다. 즉, 신사는 고노와 가와카미가 언급한 것과 같이 황조황종 이하 조상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신도의 국민도덕 담론의 핵심인 경신숭조와 보본반시(報本反始)를 실천하는 의례기관이 되는 것이다.⁸⁷⁾ 그러므로 고노는 신사의 근본의가 “일본 민족의 도덕의식과 종교의식이 기초를 이루고

84) 가토 겐치는 신사에서 제사 지내는 신의 종류에 따라 신사를 범주화하였는데, 국체신도의 정수로서 아마테라스 이하 황실의 조상신을 제사 지내는 신사를 주형(主形), 신하(臣下)나 위인 혹은 자연신을 봉사하는 신사를 종형(從形)으로 나누었다. 보충하자면 신하나 위인을 봉제하는 신사를 제1종형, 자연신을 봉제하는 신사를 제2종형으로 분류하였다. 加藤玄智, 앞의 책(1938), 233쪽.

85) 河野省三, 앞의 책(1936), 247쪽.

86) 河上民祐, 『教育と神社祭祀』(六盟館, 1942), 158쪽.

87) 이에 대해 보충하면, 가와카미는 “신사는 간나가라노미치의 표현이며, 신을 봉제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보본반시의 성(誠)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河上民祐, 앞의 책, 157쪽.

있기 때문에 일본 황국의 신들의 위덕을 경회하고 그 신령을 봉제(奉齊)하는 것에 있다”⁸⁸⁾고 하였다.

신사의 제사가 경신숭조, 보본반시의 국민도덕의 실천기관이 되려면, 신사에서 모시는 황조황중, 씨족의 조상 이하 황운익찬의 신령이 국민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나카 요시토는 “국가로서 일대가족을 이루는 일본 국가에서 황실의 선조는 국민의 선조이며, 황실을 존송하는 것은 역대의 천황을 숭배하고 다수의 일본 민족의 영웅위인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과 동시에 국민 각각의 가족은 황실에서 관국폐사를 세우듯이 혹은 다수의 신기(神祇)를 숭경하듯이 스스로 우지가미(氏神) 또는 지역수호신(産土神)의 신사를 세우고 숭경하며, 스스로의 가정 내에는 가미다나(神棚)⁸⁹⁾를 만들어 선조의 신령을 제사 지낸다”⁹⁰⁾고 하였다. 즉, 다나카는 일본국이 일대가족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황실의 조상이 국민의 조상이며, 황실에서 신궁을 세워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듯이 일본 국민들도 넓게는 마을의 우지가미(혹은 지역수호신)를 제사 지내고 좁게는 가정에 가미다나를 설치하여 보본반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이러한 신도의 국민도덕으로서의 의무와 실천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3년부터 신궁대마(神宮大廟)⁹¹⁾를 모신 가미다나의 배포⁹²⁾ 및 1936년 ‘일읍면일신사(一邑面一神祠)’를 통한 우지가미(또는 지역수호신)의 확대 정책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신도는 일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도덕으로, 신사는 경신숭조·보본반시의 국민도덕을 실천하는 의례기관으로 담론화되었다. 그렇다면 신사에서 행해지는 제의는 어떻게 규정되어졌는가? 가령 가토 겐치가 국체신도의 제의기관으로 분류한 관국폐사에서든 국가제사뿐만 아니라 사적 기원, 신생아의 명명(命名)에서부터 신전결혼식·신장제(神葬祭) 등의 일생통과의례, 신에게 바치는 주악가무(奏樂歌

88) 河野省三, 앞의 책(1936), 243쪽.

89) 가미다나는 신궁대마를 비롯하여 각 신사에서 배포하는 다양한 신의 신찰을 넣어서 모시는 선반 또는 제물상을 말한다. 가미다나에 신찰을 모시는 방법은 삼전(三殿) 형식으로 중앙에 신궁대마, 이것을 기준으로 우측에 우지코(氏子)신사의 신찰, 좌측에 숭경신사의 신찰을 모신다.

90) 田中義能, 앞의 책(1927), 80쪽.

91) 신궁대마(神宮大廟)는 일본의 황조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신 이세신궁에서 매년 전국에 배포하는 신찰(神札: 부적)을 말한다.

92) 신궁대마의 배포에 대해서는 문혜진의 「1930-1945년 신궁대마(神宮大廟)의 배포와 가정제사」(『문화인류학』 48-2, 2015) 참조.

舞) 가구라(神樂)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신사에서 의례의 비종교성에 대해 신사비종교론 측의 다나카 요시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사의 제시는 완전히 국가의 정치이며, 제(祭)와 정(政)은 하나이다. 종교가가 치병을 해도 의사가 아니듯이 신직이 기년제(祈年祭)에 축사를 올리고 오곡의 풍요를 기도해도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종교가의 본의는 그 교지(教旨)를 선전하고 인민을 교화시키는 데 있다. 관혼상제의 식전을 주재하는 것은 필연코 종교가의 임무라고는 할 수 없다. 종교가 이외도 이것이 허가된다. 일본인이 행하는 의식에는 신기(神祈)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신사에 있어서도 신전결혼을 행하고 신직이 신장을 주재하는 것을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설이다. [...] 신사는 국가의 종사이며, 그것에 대한 숭경 혹은 제시는 보본반시이다. 감사이다. 기념이다. 결코 종교가 아니다. 신도를 종교로 보게 되면, 타 종교를 믿는 자는 우지코(氏子)가 아니게 되어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자가 많이 속출하게 된다. 학교생도의 단체참배도 시킬 수 없게 된다. [...] 학교에서 어진영(御眞影)을 모시고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다. 만약 종교행위라고 한다면, 교장, 교원 등은 당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⁹³⁾

즉, 신사비종교론의 입장인 다나카는 신사에서 거행되는 국가제시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며, 일생통과의례와 같이 신사에서 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일본인의 의례에 신기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사참배 및 어진영에 대한 의례도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고 설파하였는데, 이는 이들 의례가 천황가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족적 국가인 일본국에서는 보본반시라는 국민도덕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사참배의 국민의례화 담론은 1930년대 이후 조선인의 신사참배 강제⁹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식민지

93) 田中義能, 앞의 책(1942), 162-164쪽.

94) 식민지 조선에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3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부터 강제되었다. 매월 초에 대표학생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사에서 중요한 제사가 있는 날이나, 일본의 각종 기념일에는 신사에 관한 내용을 배우거나 신사참배를 강조하였다. 일반국민에게 신사참배의 강제는 1932년 민심작흥운동을 통해 실시되었다.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제한 이유는 1920년대까지 보통학교의 취학률이 약 20%로 저조하여 교육을 통한 국체관념의 이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김승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신사(神社)」,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79호, 2007, 56쪽; 권경희, 「식민지기 보통학교 교육의 재해석」, 『초등교육학연구』 제7권 제1호, 1999, 351쪽). 이후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례인 신사참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1938년에 창건된 조선연맹과 협력하였다. 조선연맹은 지역적으로는 중앙연맹과 지방연맹,

인이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마토고코로, 간나가라노미치, 황도정신 등이라 불리는 일본정신을 체화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인의 경우 일본정신은 일본 국민의 고유한 것으로서 애초에는 소질로서 잠재해 있다가 자각을 통해서 국민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일본정신의 자각 및 함양은 4대절의 학교의식⁹⁵⁾,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축제일 의식 행사(국기계양, 기미가요·황국신민서사의 제창 등)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⁹⁶⁾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정신의 자각이 일본정신의 이식으로 변화되며, ‘국체명징’·‘내선일체’를 내세운 황민화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의 일본인화는 일본정신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에 공교육이나 신사참배를 통한 일본정신의 이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또한 1941년 이후 국체명징을 통한 국체정신(일본정신)의 이식은 미소기하라이의 실천을 통해서도 전개되었다. 미소기하라이는 1941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면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의 지시에 의해 1월 16일자로 ‘조선연맹 사무국 총장’이 각도연맹 회장과 참가단체장 앞으로 “미소기하라이의 점진적 보급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942년 6월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새로운

학교를 포함하는 직업별 각종 연맹, 이하 행정말단구역이나 부인들을 포함하는 애국반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한 관·민 전시통제 기구였다. 그리고 이들 각종 연맹 및 애국반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매일 정기적인 신사참배 외에도 공식적인 신사의 제전에 신사참배가 의무로 지워졌다(山口公一,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學大學院 社會學研究科 博士論文, 2006, 155쪽).

95) 신사참배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에서 학교교육의 세속화된 국민의례로 창출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890년 10월 30일 국가신도를 이론적으로 보강하여 교육칙어가 공포되었으며, 교육칙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는 반세기 동안 어진영봉제와 함께 황민화 교육을 위한 일본 국민교화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박진우, 「일본 파시즘의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 강제와 동의의 관점에서」, 『일본학연구』 제18집, 2006, 397쪽). 1891년에는 소학교 축일 대제일 의식 규정이 공포되어, 기원절·천장절 등의 축제일에 교사와 학생들이 식장에서 행할 의식의 내용들, 즉 ‘천황의 사진에 대한 배례, 만세 봉축, 칙어 봉독, 교장 훈시, 축제일 참가 합창’ 등이 규정되었다(미즈노 나오키 외 저, 정선태 옮김,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치림, 2004, 137쪽). 그리고 이러한 학교 행사와 신사참배 등의 실천과 이른바 국책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국어(일본어), 수신, 국사(일본사)’ 등의 교과내용을 통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학교교육은 국가주의·군국주의 방향으로 획일화되었다. 즉, 신사참배를 비롯한 학교의식(儀式)은 이른바 “천황교(天皇敎)”의 교전으로서의 ‘교육칙어’를 위시하여, 학교에서 국민의례로서 메이지 시기부터 실시되었다(오에 시노부 저, 양현해·이규태 옮김,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川花, 2002, 84쪽).

96) 巨理章三郎, 앞의 책(1933), 14쪽, 223쪽.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동원의 전제가 황국정신·황민정신의 연성”이라는 정치적 판단하에 기존의 조선연맹 사무국을 개편하여 연성부(鍊成部)를 신설하면서 확대된다. 미소기하라이는 원래는 신도의 정화의레이지만, 전시체제하에는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신을 오염시키는 불필요한 (조선의) 사고, 감정, 관습을 미소기하라이로 정화함으로써, 깨끗한 동일민족의식을 구축”한다는 담론⁹⁷⁾ 속에서 실천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 식민지기 신사참배·미소기하라이 등의 신사의례가 국민의례로서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된 것은 “국가신도의 도덕적 요소” 때문이었으며, 그 도덕적 담론은 첫 번째, 경신송조로서 일본은 일대가족 국가이기 때문에 황실의 조상은 국민의 조상으로서 황실조상신의 숭경이 국민의 도덕적 의무가 된 것이다. 두 번째, 도덕적 담론은 보본반시로서 신사에서 조상신, 특히 황실 조상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례는 보본반시를 실천하는 국민의 도덕적 의례로서, 신사의 제신에게 인사를 올리는 가장 간단한 신사참배가 국민의례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하 식민지 조선인의 물질·심적 동원을 위해 조선인의 일본인화(혹은 일본국민화)가 필요했고, 일본정신의 이식을 통한 황민화 정책은 국민의례로서 조선인의 신사참배의 강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IV. 맺음말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황민화 정책의 실시로 신사참배, 신궁대마를 모신 가미다나의 봉제, 조선인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미소기하라이의 실천 등이 강제되었다. 신사참배는 일본인들이 신사에 가서 신에게 하는 인사이고, 가미다나는 일본 가정에서 신을 모시는 가신신앙이며, 미소기하라이는 신사제사에서 행하는 일종의 정화의레이다. 이들 신도의 제사의례가 1930년대 전시체제하에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되기 시작한 것은 국가신도의 국민도덕성에 기인한다.

신도는 아마테라스가 신칙을 내린 이후부터의 일본의 신들과 조상들의

97) 國民總力朝鮮聯盟, 앞의 책, 11쪽.

행적이며, 이를 후손들이 본받고자 일상생활에서 신의 도를 실천하기에 신도가 일본의 국민도덕이 된 것이다. 신도는 황조신 아마테라스가 손자 니니기에게 일본 땅으로 내려가 다스릴 것을 명한 신칙에 의해 그 기초가 세워져 국체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국체는 아마테라스를 황조 중의 황조로 해서 황실 이하 일본 국민이 일대가족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가토가 정의한 국가적 신도(또는 국가신도)의 국체신도를 이룬다. 국가의 종사로서 국가신도의 도덕적 구현인 국체신도에 있어서 경신숭조·보본반시가 중요 도덕적 가치로 거론되며, 국체신도의 의례기관인 신사에서 신사참배를 위시한 신도의례는 국민의 조상신에 대한 의례로서 종교적 의례가 아닌 국민의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 국체의 정수인 황실숭경, 한층 더 나아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일본인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도덕이며, 이것이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유행한 간나가라노미치·황도의 핵심 논리로 이어진다. 즉, 국가신도의 제사와 국민도덕은 '신사의 제사를 통한 천황숭경'이란 언설로 이어져 있다. 일제 식민지기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민화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이며, 내선일체(혹은 조선인의 일본인화)는 녹기연맹의 쓰다 다카시가 서술했듯이 국체정신(또는 일본정신)의 자각 혹은 이식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인에게 유전하는 일본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본정신을 이식받아야 했으며, 일본정신의 이식은 경신숭조나 보본반시에 대한 공교육이나 신사참배와 같은 신도의례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연맹과 같은 관변단체의 협력하에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당시의 식민지 지식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결국 정책 형성의 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사참배와 같은 국가신도 의례의 국민의례화 현상도 민족말살정책이었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상적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경성제대 장서는 식민지 지식의 최고의 보고로서 조선총독부의 정책 형성의 배경, 한층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지식인 개개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경성제대 윤리·신도 부문의 장서는 전시체제 하 심성동원을 위한 황민화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식민지 정책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京城日報》

1. 경성제대 장서

- 加藤仁平, 『三種神器觀より見たる國民精神發達史』. 東京: 教育研究會, 1928.
_____, 『三種の神器觀より見たる日本精神史』. 東京: 第一書房, 1939.
加藤玄智, 『神道の宗教發達史的研究』. 東京: 大空社, 1935a.
_____, 『神道の再認識』. 東京: 章華社, 1935b.
_____, 『神道精義』. 東京: 大日本圖書, 1938.
建部遜吾, 『戊申詔書衍義』. 東京: 同文館, 1909.
高阪太郎, 『大東亞戰爭と青年學徒の道』. 東京: 東世社, 1942.
國民精神作興會 編, 『教育勅語物語』. 東京: 金蘭社, 1930.
國民總力朝鮮聯盟, 『祓禊の獎勵』. 京城: 國民總力朝鮮聯盟, 1941.
國學談話會 編, 『國學論纂』. 東京: 神田書房, 1942.
今泉定助, 『大祓講義』. 東京: 山洲堂書店, 1938.
巨理章三郎, 『國體精神の涵養』. 中文館書店, 1933.
_____, 『勅語の聖訓と道德教育』. 東京: 明治圖書, 1934.
_____, 『聖訓と日本精神』. 東京: 金港堂, 1942.
吉田熊次, 『國體と倫理』. 東京: 富山房, 1925.
大塚承一, 『實修神社祭祀行事作法精義』. 東京: 京文社, 1941.
山田孝雄, 『國民精神作興に關する詔書義解』. 東京: 寶文館, 1933.
上内彦策, 「神社參拜に就いて」. 綠旗聯盟, 『綠旗』 1권 1호, 1937.
神祇學會 編, 『神祇に關する制度作法事典』. 東京: 神祇學會, 1944.
深作安文, 『國民道德要義』. 東京: 弘道館, 1933.
遠山信一郎, 『日本精神と新興報德』. 東京: 二宮尊德翁全集刊行會, 1939.
田中義能, 『國民道德要領講義』. 東京: 日本學術研究會, 1927.
_____, 『神道哲學精義』. 東京: 日本學術研究會, 1928.
_____, 『がむながらの神道の研究』. 東京: 日本學術協會, 1933.
_____, 『神道概論』. 東京: 明治書院, 1942.
井上哲次郎, 『(新修)國民道德概論』. 東京: 三省堂, 1928.
朝鮮教育會,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の組織と其の活動」.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事務局, 『文教の朝鮮』, 1940.
佐伯有義 編, 『武士道全書』 1. 東京: 時代社, 1942.
竹下數馬, 『平田篤胤の古典精神』. 東京: 文松堂, 1943.
津田剛, 「內鮮一體の勃興と我等の使命」. 綠旗聯盟, 『綠旗』 2권 11호, 1937.

清原貞雄, 『神道史』. 東京: 厚生閣書店, 1935.

河上民祐, 『教育と神社祭祀』. 東京: 六盟館, 1942.

河野省三, 『國學の研究』. 東京: 大岡山書店, 1932.

_____, 『日本精神發達史』. 東京: 大岡山書店, 1934.

_____, 『唯一神道名法要集解説』. 東京: 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5.

_____, 『日本精神の研究』. 東京: 日本文化協會, 1936.

_____, 「神社の本義」. 日本電報通信社 編, 『神社大觀』, 東京: 日本電報通信社, 1940.

_____, 「中臣祓と民族精神」. 國民總力朝鮮聯盟 編, 『祓禊の獎勵』, 京城: 國民總力朝鮮聯盟, 1941.

_____, 『皇道の研究』. 東京: 博報堂, 1942a.

_____, 『我が國體と日本精神』. 東京: 青年教育普及會, 1942b.

皇典講究所 編, 『宮中三殿竝に祝祭日解説』. 東京: 國晃館, 1912.

2. 국내 논문 및 단행본

권경희, 「식민지기 보통학교 교육의 재해석」. 『초등교육학연구』 제7권 제1호, 1999, 347-359쪽.

김승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신사(神社)」.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79호, 2007, 51-72쪽.

미즈노 나오키 외 저, 정선태 옮김,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치림, 2004.

박규태, 「국가신도란 무엇인가」. 『종교연구』 제29집, 2002, 229-258쪽.

_____, 「종교와 공공성: 국가신도의 국제신학과 공사관념」. 『종교문화비평』 26권, 2014, 150-194쪽.

박진우, 「일본 파시즘의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 강제와 동의의 관점에서」. 『일본학 연구』 제18집, 2006, 391-413쪽.

오에 시노부 저, 양현해 · 이규태 옮김,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川花, 2002.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50, 2000, 200-216쪽.

정근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통권 87호, 2010, 39-80쪽.

鄭惠瓊 · 李昇燁, 「일제하 綠旗聯盟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1999, 329-369쪽.

최석영,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 민속원, 2012.

3. 해외 단행본

山口公一,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學大學院 社會學研究科 博士論文, 2006.

村上重良, 『國家神道』. 東京: 岩波新書, 1970.

_____, 『國家神道と民衆宗教』. 東京: 吉川弘文館, 2006.

4. 인터넷 사이트

KAZO INTERNET MUSEUM www.kazo-dmuseum.jp

국 문 요 약

일제 식민지 종교연구 중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신사참배 문제이다. 기존의 학계에서의 신사참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독교계 입장에서의 신사참배 강제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신사참배란 무엇인가? 신사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청하러 왔다고 혹은 신을 찾아뵈러 왔다고 인사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신사의 간단한 의례가 일제 식민지기 조선에 서뿐만 아니라 대만 등지에서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된 것은 피식민지인들을 일본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국민의례의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국민도덕과 국가신도 간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과정, 혹은 국가신도 의례의 국민의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식민지 지식 생산의 보고인 경성제대의 윤리 부문과 신도 부문의 장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담론 및 실천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일본의 국민도덕이란 충효 본위의 유교를 바탕으로 만세일가의 천황을 어버이로 하여 천황의 신민들은 그 직분을 다하면서 천황가를 제사 지내고 천황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민도덕은 1920년대까지는 서구사상에 대항한 일본정신의 옹호 측면에서, 1937년 이후로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지도원리 ‘황도’로서 논해져왔다.

둘째, 일본의 국민도덕은 국가신도의 도덕성과 연관이 있다. 즉, 신도는 아마테라스가 신칙을 내린 이후부터의 일본의 신들과 조상들의 행적이며, 이를 후손들이 본받고자 일상생활에서 신의 도를 실천하기에 신도가 일본의 국민도덕이 된 것이다. 신도는 황조신 아마테라스가 손자 니니기에게 일본 땅으로 내려가 다스릴 것을 명한 신칙에 의해 그 기초가 세워져 국체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국체는 아마테라스를 황조 중의 황조로 해서 황실 이하 일본 국민이 일대가족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가토가 정의한 국가신도의 국체신도를 이루며, 이러한 국체신도를 숭경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곧 국민도덕이다.

셋째, 국가신도의 국체신도는 국가의 종사로서 신사는 경신숭조·보본반시의 국민도덕의 실천기관이며, 신사에서의 의례는 국민의 조상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로서 종교적 의례가 아닌 국민의례가 되었다. 1930년대

전시체제하에서 조선인의 심적·물적 동원을 위해 황민화 정책이 실시되었고, 조선인의 황민화는 일본정신의 이식을 목표로 공교육이나 신사참배와 같은 국가신도의 의례를 통해 신사숭경을 함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생산한 지적 담론들은 일제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향후 심도 깊은 식민지 정책의 연구를 위해 식민지 지식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성제대 장서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투고일 2015. 9. 21.

심사일 2015. 11. 13.

게재 확정일 2015. 12. 2.

주제어(keyword) 경성제대 장서(Book Collection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국민도덕(National morality), 신사참배(Shinto Shrine Worship), 황민화(Japanization), 국민의례(Pledge of allegi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Shinto and the Discourse of Japanese National Morality in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Mun, Hea-jin

One of main themes in religious study of Japanese occupation period is Shinto shrine worship. Previous researches about shrine worship have been focused on the compulsion of shrine worship by Christian researchers. However, what is 'shrine worship'? It is to clap hands and bow down to the gods of shrines before ones pray. In 1930s, such simple Shinto ritual had been extensively forced into Koreans and Taiwanese with the aim of Japanization. So, shrine worship should be considered as a kind of 'the pledge of allegi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Shinto and the discourse of Japanese national morality should be studied to understand how shrine worship had been changed as the pledge of allegi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State Shinto could be national morality or how rituals of State Shinto could be the pledge of allegianc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shinto and the discourse of Japanese national morality. The research subject is books of morality section and Shinto section among book collection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 First, Japanese national morality can be defined as serving the Japanese emperor as a father in the perspective of filial piety-centered Confucianism and holding a memorial service for Japanese emperor's ancestors as Japanese citizen's duty. Such Japanese national morality had been used as the discourse of Japanese spirit to fight against Western ideas until 1920s and as the discourse of 'the Imperial way(皇道),' a guiding principle to construct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ince 1937.

Second, Japanese national morality is related to morality of State Shinto. In other words, Shinto is the behavior rules of Japanese gods and ancestors after Japan was founded according to Amateras' order. Japanese descendants had followed such rules to emulate their good behavior, so that Shinto had become the national morality. Shinto was begun by Amatera's order that instructed Ninigi living in the sky to descend toward Japanese land, and Ninigi's descendant became emperors of Japan. And then, it had been developed as Gukche(國體), a political system of a nation. Such Japanese political system means that Japanese people form a big family, respecting imperial family as their parents. It is called as 'Gukche Shinto,' as a result, 'Gukche spirit' becomes Japanese national morality.

Third, as Gukche Shinto(a type of State Shinto) is a national ritual, Shinto shrines are a place where Japanese people practice the national morality such

as respecting gods and ancestor spirits and returning their' favor. As a result, rituals in Shinto shrines became the pledge of allegiance as ethical obligation returning national ancestor spirits's favor. Under the war basis of 1930s, the policy making Japanese was enforced to mobilize a sense of loyalty and supplies. And such assimilation policy was carried out by public education or practice of rituals of State Shinto such as Shinto shrine worship. Like this, intellectual discourse influenced on a policy decision of colonial government. Therefore, I hope that book collection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which played key roles in production of colonial knowledge, would be used for future study of colonial policy.